

“의무해제 됐는데…마스크 이젠 습관됐어요”

대중교통 노미스크 첫 날

버스·열차서 시민들 대부분 착용

미세먼지 ‘나쁨’ 잔기침 시달려

“혹 같은 마스크 떼서 훌가분해”

“아직은 밀폐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없네요. 비상용 마스크를 항상 들고 다니려고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버스정류장.

시민들은 이날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출근길 풍경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주머니, 가방 속에는 모두 마스크를 휴대하고 있었다. 야외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쳐 쓰고 있던 한 시민도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곧바로 올려 쓰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향주씨

(51)는 “오랜 기간 억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느라 너무 답답해서 야외에서는 벗고 다닌다”며 “버스는 공간이 밀폐돼 있어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게 가방 속에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고, 10명 중 1명 정도만 마스크를 착용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도 광주 시내 버스는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울리기도 했다. 시민들도 생활의 일부가 된 마스크를 당장 벗기는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직장인 정지환씨(28)는 “남들도 마스크를 모두 쓰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됐다”며 “코로나19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노마스크로 감염되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봄철 미세먼지와 감기 등 호흡기 예방 등으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광주 지역은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100㎍/㎥을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버스 승객 권 모씨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 잔기침이 계속 나왔다”며 “혼자 노마스크로 버스에서 기침을 해서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년 5개월 만의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를 반가워하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고 모씨(25)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줄었다. 그동안 억지로 붙여놓은 혹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좋다”며 “조만간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시농민회가 2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과 광주시 농업예산 3%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농민회 “양곡관리법 개정, 생존권 보장”

24일까지 대정부 투쟁 선포식

광주지역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시농민회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허덕이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양곡관

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0.7%에 불과한 광주시 농업예산을 3% 대로 확대하리”고 요구했다.

이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면서 농산물 수입경로를 다변화하는 정책을 입안했고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산물에게 뒤집어씌우며 저관세·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했다”며 “자동시장 격리제 하나 포함된 개정안마저도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안탄압과 농민말살정책으로 우

리를 죽이려는 정부와 더는 공존할 수 없다”며 “정권에 맞서 싸워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구례, 해남, 담양, 순천, 보성, 영암, 나주와 전남도청 등에서 ‘공안탄압분쇄, 윤석열 정권심판, 농민생존권 쟁취’ 등을 구호로 투쟁 선포식을 잇달아 열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전남대 조직개편…연구·교학·여수 ‘3부총장제’

글로벌대외협력처 등 신설도

전남대학교가 연구부총장직과 글로벌대외협력처를 신설하는 등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관련 명단 17면

전남대는 20일 신설된 연구부총장에 민정준 전 연구처장(의학과)을, 연구처장에 하준석 교수(화학공학부)를 임명했다. 기존의 대외협력본부와 국제협력본부를 하나로 통합해 신설한 글로벌대외협력처장에 국민석 전 대외협력본부장(치의학과)을 임명했다.

광주시교육청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본부에 교육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정보전산원은 정보화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김은일

광주부총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박복재 여수캠퍼스 부총장은 여수부총장으로 각각 바뀐 직제에 유입됐다.

전남대는 3부총장 체제 속에서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연구환경 조성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글로벌대외협력처를 통해 대외협력과 국제협력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교육협력실을 통해 지역교육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전산원을 본부조직인 정보화본부로 편제해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선도하는 정보통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전체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체 급식종사자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장우삼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제13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실시(안)’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력 5년 이상 급식종사자 1,326명 대상 폐암 검진을 실시했다. 올해는 대상을 전 급식종사자로 확대, 약 950여명의 미검진자를 대상으로 추가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국회의원 비서관, 아동학대 입건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에 휘말린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해당 식당에서 자녀를 학대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도심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10세 미만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를 훈계했다. 같은 식당에 있던 손님이 ‘애한테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더니 신고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봉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조달청등록업체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TEL.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